

# 제1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 작년 수능 특징

- 공통과목인 문학과 독서는 전체적으로 2023시행(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는데, 문법이 특히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화법과 작문 파트를 가볍게 생각한 학생들도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문학 6개 작품 중 3개 작품이 EBS와 연계되었지만, EBS 연계를 인지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답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독서 지문 역시 4개 지문이 EBS와 모두 연계되었지만 문학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답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국가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대로 킬러문항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었으나,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2022시행(2023학년도) 대수능이나 2023시행(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학: 27번, 31번
  - 독서: 15번, 16번
  - 언매: 35번, 37번
  - 화작: 40번, 43번, 45번

## 금년 6모 특징

- 전체적으로 2023시행(2024학년도)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 문학 영역의 난이도는 이전 연도의 수능에 비해 낮은 편이었습니다. 6개 지문 중 4개 지문(이대봉진, 우부가, 아버지의 땅, 청산행)이 EBS 연계(수능특강)로 출제되었습니다.
- 2023시행(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 독서의 난이도가 대폭 낮아졌지만 그 이후 독서 영역은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독서 이론 영역을 제외한 3개 독서 지문(사회·문화-과두제적 경영, 과학·기술-플라스틱과 화학 결합, 인문·예술-도덕문장의 진리 적합성)이 모두 EBS 연계(수능특강)로 출제되었습니다.
-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은 인문·예술 영역에 해당하는 '도덕문장의 진리 적합성'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영역을 막론하고 지문의 내용을 선택지에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변형하여 선택지를 만드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해력과 사고력을 키워 변형된 선지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독서 난이도가 낮아진 이후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영역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 킬러문항은 배제되었습니다.

## 금년 9모 출제 예상

- EBS(수능특강)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기에 금년에도 EBS 수능특강에 출제된 내용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지문의 연계를 인식하는 것과 출제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므로 독해력·사고력·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학습은 항상 필요합니다.
- 금년 6모와 마찬가지로 독서의 이론에 대한 문제 1지문, 인문·예술 1지문, 과학·기술 1지문, 사회·문화 1지문이 출제될 것으로 여겨지며, 독서 이론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중 1개 지문은 주제통합 형식의 지문이 출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2016년~2020년까지는 독서 지문과 문학 지문의 순서가 혼재되어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2015년까지와 마찬가지로 독서 지문이 앞에, 문학 지문이 뒤에 출제되는 경향이 유지되었고, 금년 6모에도 이와 같은 경향이 적용되었기에 9모에서도 동일한 순서로 출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선택과목은 화법 3문항, 화법+작문 5문항, 작문 5문항, 언어(문법)는 1개 지문을 포함한 5문항, 매체는 2개 지문이 사용된 6문항의 구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킬러문항은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실전 모의고사는 위 출제 예상 내용을 반영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3회분 모두 4개의 독서 지문과 4개의 문학 지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주제 통합 독서 지문과 '독서'에 대한 지문은 출제될 확률이 100%에 가까우므로 모든 회차에 제시하였습니다.
- 언어와 매체는 2회분은 매체의 문항 구성을 3, 3문항으로, 1회분은 4, 2문항으로 구성하는 등 여러 유형을 접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 문학 갈래 복합은 22번 자리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3회분 모두 22번 자리에 갈래 복합을 출제하였습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오래된 미래』는 내가 여러 번 읽은 책 중의 하나이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파괴와 서구식 발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죽어 가는 생태 환경과 전통문화에 대한 저자의 따뜻한 애정,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애타는 호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오래된 과거의 히말라야산맥 기슭 오지의 작은 마을 라다크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인류가 미래에 택해야 할 삶의 모델”이라는 저자의 강력한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할 수 없었다. 좋게 보면 독자적이고 낭만적이지만,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현실성 없는 유아적 몽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문명과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와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나는 이 책을 다시 정독하게 되었고, 이 책의 내용이 유아적 몽상이라고 했던 나의 평가를 수정하게 되었다. 생명에 대한 그녀의 신선하면서도 깊은 사유가 예언자적 사명 의식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생태 환경서가 많이 나왔지만 그 대부분은 무미건조한 학술서나 과학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책들과 달리 『오래된 미래』는 생태 환경에 관한 고도의 인문적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더 절실하고 감동적이며,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언뜻 보기와는 달리 생태 환경 문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이기에 앞서 인문학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 인류 문화학자가 쓴 이 책은 오늘날 심각한 병이 든 생태 환경을 살려낼 수 있는 진단인 동시에 하나의 처방임에 틀림없다.

나는 노르베리-호지가 말하는 환경 문제의 대안이 아직도 현실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과학적 세계관과 기술에 근거한 문명을 폐기하라는 그녀의 제안은 21세기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그녀가 제시하는 대안으로써만 가능하다. 이 책은 결정적 위기에 처한 문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1. 윗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독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목을 통해 책의 내용에 대해 예측한다.
- ② 새로운 경험을 통해 책의 내용을 재구성한다.
- ③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책과 비교하며 읽는다.
- ④ 저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 ⑤ 독서 과정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독서한다.

2.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순진한 독자’에게 조언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순진한 독자가 있다. 이들은 마치 음식을 먹듯이 책을 대하는 독자요, 배불리 먹고 마시듯 그대로 받아들인다. 책은 이끌고 독자는 따라가는 것이며, 책의 소재는 있는 그대로 수용되고 객관적 실체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순진한 독자는 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개인, 온전한 자신이라 할 수 없다.

-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의 독서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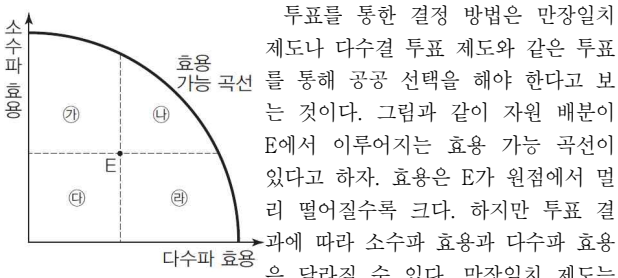
- ① 글이 실려 있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읽어야 한다.
- ②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독서 방법을 선정하여 읽어야 한다.
- ③ 글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글에 담긴 세부 정보를 더욱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
- ④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독서를 해야 한다.
- ⑤ 글에 제시된 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3. 글쓴이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해당 대안 외에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더라도 그 대안을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② 생태 환경 문제는 무미건조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인문학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
- ③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
- ④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이라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다.
- ⑤ 학술서나 과학서보다는 인문학적인 접근이 생태 환경 문제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공재에 관한 의사 결정은 순수 경제 이론인 합리성에 기초한 모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워 투표 등과 같은 정치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공공재의 적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는 일련의 이론들이 나타났는데, 이를 총칭하여 공공 선택 이론이라고 한다. 공공 선택 이론은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공재 공급의 최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이론으로, 경제학 분야에서 발전해 오다가 1960년대부터 공공 선택이라는 용어가 행정학에 등장하게 되었다. 공공 선택 이론은 대략 세 가지의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투표를 통한 결정 방법, 개체주의적 방법, 유기체적 접근 방법이 그것이다.



투표를 통한 결정 방법은 만장일치 제도나 다수결 투표 제도와 같은 투표를 통해 공공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과 같이 자원 배분이 E에서 이루어지는 효용 가능 곡선이 있다고 하자. 효용은 E가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크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 따라 소수와 효용과 다수와 효용은 달라질 수 있다. 만장일치 제도는 모든 사람의 찬성을 이끌어 내어 어떤 사람의 소득도 감소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반대해도 새 정책이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책이 좋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기 쉽다. 그래서 ㉠ 다수결 투표 제도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다수결 투표에 의한 결정은 승자에게는 만족을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패자에게 불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

개체주의적 방법에서는 집단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든다고 본다. 결정 비용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합의를 위해 필요한 설득 및 합의를 위한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한 비용, 전략적 협상이나 정치적 계약을 위한 비용 등을 말한다. 그래서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결정 비용은 보다 많이 든다. 외부 비용이란 ㉡ 개인의 의사와 [A] 관계없이 어느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 그 개인에게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외부 비용은 증가한다. 다시 말해 집단 선택에 요구되는 찬성자 수가 많을수록 결정 비용은 증가되고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 이러한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이 정치적 비용 곡선인데, 이 곡선이 최저점일 때를 최적의 공공 선택으로 본다.

유기체적 접근 방법에서는 정부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의 집합체로 보지 않고 정부도 그 스스로의 선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로 본다. 그래서 정책의 논리적 측면보다는 집행 가능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는 특정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선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적 합리성 내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익의 관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재의 선택은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주로 시장에서의 소비자나 기업의 행태 분석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정부의 정책은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거나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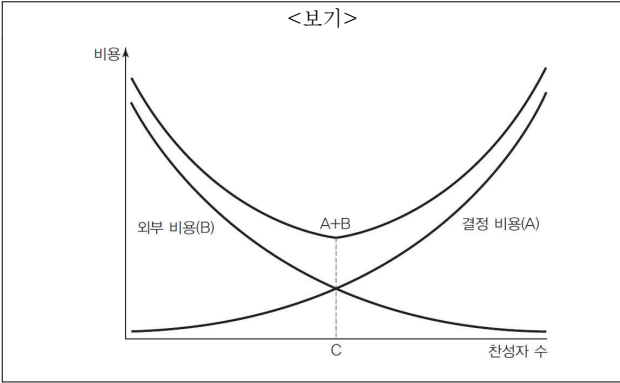
에 그쳤다. 그러나 공공 선택 이론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달리 비시장적 의사 결정 내지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투표자, 정치가, 관료 등 참가자의 선택 행위에 관심을 둔다. 이런 점에서 공공 선택 이론은 공공 자원의 배분 최적화를 위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4. 밑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 선택 이론에 대한 개념
  - ② 공공 선택 이론이 관심을 두는 대상
  - ③ 공공 선택 이론이 지닌 유용성과 폐해
  - ④ 유기체적 접근 방법에서 정부를 보는 관점
  - ⑤ 만장일치 제도로 공공 선택을 했을 때의 장단점

5. ㉠을 채택할 때, 밑글의 그래프에서 E가 이동할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또는 나
- ② 가 또는 다
- ③ 다 또는 라
- ④ 나 또는 라
- ⑤ 다 또는 라

6. [A]의 '정치적 비용 곡선'을 <보기>처럼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특정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상호 협의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 ② B는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하게 되면 0이 될 것이다.
- ③ B는 특정 사안에 대해 반대자의 수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 ④ C 지점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최적의 공공 선택이 된다.
- ⑤ A가 상승하면 A+B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7.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 제반 시설 비용
  - ②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된 물질로 인해 주변의 농민들이 본 손해
  - ③ 도로 건설에 반대한 사람이 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부담한 조세
  - ④ 이사 가기 위해 여러 이사 업체의 견적을 알아보기 위해 들인 노력
  - ⑤ 아파트 하자 보수를 맡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인 시간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많은 고대 문명의 유물에서 다양한 모양의 주사위가 발견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는 기원전 275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위가 출토되었고, 인더스 유적지에서도 다양한 모양의 주사위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유적인 안압지에서 14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출토되었다. 고대인들은 유산이나 전리품을 나눌 때와 같이 공정한 분배가 필요한 경우 주사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고대인들이 주사위를 던져 어떤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모두 같다는 무작위성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주사위 게임과 같이 일어날 확률이 같고 각각의 현상이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작위 추출법과 관련한 고대의 유물과 기록이 많이 발견되었지만, 그 현상에 대한 수학적 탐구는 한참 뒤에야 이루어졌다. 가령 주사위를 던져 어떤 수가 나올 것인가를 맞히는 주사위 게임은 고대로마 시대부터 유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수학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수학적 연구는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탈리아의 수학자 가르다노는 「게임의 확률 이론」이라는 저술을 통해 주사위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 밝혔 바 있다.

이후 17세기에 와서야 파스칼에 의해 무작위 추출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당시 드 마레는 유명한 수학자인 페르마에게 다음과 같은 상금 분배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페르마와 파스칼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확률'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나게 된다.

드 마레가 제기한 문제를 오늘날의 상황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합에서 다섯 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상금을 주려고 한다. 그런데, A가 4승을 하고, B가 3승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시합이 중단되었다. 재시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100만 원의 상금을 두 사람에게 분배하려고 하는데, 과연 몇 대 몇으로 나누어 주어야 할까?" 당시 사람들은 이긴 시합의 수에 따라 4:3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 앞으로 이겨야 할 시합의 수를 고려하여 2:1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파스칼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하였다. "다음 시합이 속행된다고 할 때,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A가 이길 가능성과 B가 이길 가능성은 같다. 만약 다음 시합에서 A가 이긴다면 A가 먼저 5승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절반이므로 우선 A가 상금 50만 원을 가져간다. 만약 속행된 다음 시합에서 B가 이긴다면, 상금 50만 원이 걸린 시합에서 두 선수가 각각 4승씩을 한 상황이 된다. 이 경우 다음 시합에 두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동일하므로 각각 25만 원씩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된다. 결국 A는 다음 시합에서 이길 경우의 50만 원과 다음 시합에서 지고 그다음 경기에서 이길 경우의 25만 원을 가지게 된다. B는 두 번 연속으로 이길 경우의 25만 원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금은 75:25, 즉 3:1로 분배하면 된다."

파스칼은 만약 시합이 계속 진행될 경우, 각각의 시합에서 두 사람의 이길 가능성은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파스칼은 이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상금을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실제로 나타나는 우연적 현상을 구조화하는 도구로서 수학적 확률 개념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8.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대상이 지닌 의미를 학문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중심 소재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 ③ 특정 개념의 발전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④ 과거 시점의 내용을 현재적 시점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설명하려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사위 게임이 유행하게 된 것은 16세기 이후이다.
  - ② 고대인들은 공정한 분배가 필요한 경우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③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에 새겨진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
  - ④ 16세기 이전에는 무작위 추출법에 대한 체계적인 수학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⑤ 무작위 추출법에 대한 수학적 연구는 확률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0. [A]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끌어 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일기 예보에서는 내일 종일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하였다. 내일 비가 올 경우, A 기업은 회사 마당에 쌓아 둔 상품이 손상되어 8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업 A는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막으려고 계획하였지만, 이러한 예방 조치에는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일기 예보의 정확성이 50%라고 할 때, 기업 A는 과연 예방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 ① 일기 예보에 따르면 비가 올 확률이 높으므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결국 내일의 일기는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 두 가지 경우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방 조치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 ③ 비가 왔을 때 발생하는 손해보다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므로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비가 왔을 때 발생하는 피해액과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예방 조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상관이 없다.
- ⑤ 예방 조치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보다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피해액이 더 크므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밑줄 친 부분이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인류는 두뇌를 밝혀 문명을 일으켰다.
- ② 이번 일은 진실을 꼭 밝히고야 말겠다.
- ③ 등잔에 불을 밝혔는지 장지문이 환해졌다.
- ④ 그렇게 노름을 밝히던 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
- ⑤ 밤을 거의 뜯눈으로 밝히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가 곧 상공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제가 무슨 죄가 있기에 밤중에 이런 꾸중으로 부르셨습니까?”  
 하고 여쭙었다. 그러자 백공이 크게 노하여,  
 “수일 전부터 너에게 수상한 일이 있기에 너에게 물었더니 네 말이 선군이 떠난 후 적막하여 매월과 함께 얘기를 나눴다고 하길래 믿겨지지 않아서 매월을 불러서 힐문하니 매월이는 요사이 일체 네 방에 가지 않았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는 일일 것 같아 여러 날을 잘 살펴온즉 분명 어떤 놈이 네 방에 출입하는 것이 틀림없거든 네 무슨 얼굴을 들고 변명하려 드느냐?” 하였다. 그러자 남자가 울면서 변명하니 백공이 크게 꾸짖어 말했다.

“닥쳐라!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본 일인데, 네가 끝 끝내 나를 속이려고 하니 어찌 통해(痛駭)치 아니하라. 양반의 집에 이런 해괴한 일이 있기는 드문 법, 실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네가 상통한 놈의 성명을 빨리 대라.”

하는 시아버지의 호령이 서릿발 같았다. 그러나 남자는 오히려 낭랑하게,

“아무리 시부모님 간택으로 옥례를 이루지 못한 며느리라 할지라도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억울한 누명을 발명(發明)하기도 창피하오나, 아버님께서 자세히 조사해 보십시오. 이 몸이 지금 비록 인간으로 있사오나, 저의 빙옥(氷玉) 같은 정절(貞節)로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천수(潁川水)가 멀어서 귀를 씻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다만 죽어 모르고자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시아버지 백공이 비복을 호령하여 남자를 결박하라고 명하니, 비복들이 일시에 달려들어서, 머리를 산발하여 층계 아래 끌어앉혔다. 남자의 이런 몸골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가련하였다. 백공이 크게 노하여,

“네 죄상은 만 번 죽여도 아깝지 않으니, 너와 사통한 놈의 성명을 빨리 대라.”

하고 다그치며 매질을 하니 남자의 백옥 같은 귀 밑에 흐르는 것은 눈물이고, 옥같이 흰 살결은 유혈이 낭자하였다. 남자는 악형의 고통을 참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저번에 남군이 길 떠난 밤과 이튿날 밤 두 번, 겨우 삼십 리쯤 가다가 숙소를 정하였으나, 저를 잊지 못해 밤중에 집으로 몰래 돌아왔기에, 제가 한사코 잘 말해서 도로 보낸 일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나 제 어린 소견으로는 시부모님 [A]께 꾸중을 들을까 겁을 내어 지금까지 고하지 않고 있었더니, 조물(造物)이 그것을 밋게 여기시고 귀신이 그것을 시기해서, 이런 씻지 못할 누명을 입은 듯하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찌 해명할 길이 없습니까다마는 밝은 명천은 소소히 살펴 아시오니 [B] 아버님께서 그런 사실과 저의 정상을 살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백공은 점점 더 노하여 매를 든 비복을 돌려해서 헤아려가며 혹독한 매질을 가하였다. 남자가 하는 수 없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아아, 공명한 창천이여! 무죄한 이내 마음을 굽어살피소서. 오월비상지원(五月飛霜之怨)과 십년불우지원(十年不雨之怨)을 뉘러서 풀어 주겠습니까?”

하고 호소하면서 엎어져서 기절하고 말았다. 시어머니 정씨가 그 며느리의 참상을 보고 울면서 영감에게 애타게 부르짖으며,  
 “옛말에 이르기를 엎지른 물은 그릇에 다시 담지 못한다 하오니,

영감은 자세히 모르시고 백옥같이 티 없는 정절한 며느리를 억울하게 음행(淫行)의 죄로 포박(捕迫)하시니, 며느리의 무죄가 밝혀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없겠습니까?”

하고 뜰 아래로 뛰어 내려가서 남자를 안고 대성통곡(大聲痛哭)하였다.

“너의 송백 같은 절개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오늘 이런 변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니 어찌 지극히 통탄치 않으랴.”

하니 남자가 말하기를,

“옛말에도 음행의 소문은 씻기 어렵다 하오니, 동해의 물로도 씻지 못할 이런 누명을 쓰고 제가 어찌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하고 통곡하였다. 시어머니 정씨가 남자를 가엾게 여기고 만단으로 위로하고 타일렀으나, 남자는 끝내 듣지 않고 문득 옥잠(玉簪)\*을 빼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절하고 빌었다.

“지공무사(至公無私)한 황천(皇天)은 굽어살피소서. 제가 만일 외간 남자와 간통한 일이 있거든, 이 옥잠이 제 가슴에 [B] 박히게 하시고, 만일 애매한 누명이거든 이 옥잠이 저 섬돌에 박히도록 하십시오.”

하고 옥비녀를 공중으로 높이 던지고 땅에 엎드렸다. 이윽고 그 옥잠이 떨어지면서 섬돌에 깊이 박혔다. 그제서야 하늘이 심판한 기적을 보고 대변에 상하 모든 이가 대경실색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남자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알게 되었다. 백공이 뜰로 내려가서 남자의 손을 잡고 빌어 말했다.

“늬으니 주착이어서 착한 며느리의 정절을 모르고 망령된 일을 저질렀으니, 내 허물은 만 번 죽여도 죄를 씻지 못하리라. 바라건대 너는 나의 용렬함을 용서하고 안심하라.”

남자는 슬피 통곡하면서,

“제가 이런 누명을 씻고 세상에 머물러 쓸데없사오니 다만 빨리 죽어서 아황여영(娥皇女英)의 자취를 좇으려 합니다.”

하였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옥잠: 옥비녀.

18.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 사건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보다는 서술 위주의 전개로 사건을 느끼게 제시하고 있다.
- ④ 관용어를 사용하여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간마다 서술자를 달리 설정하여 공간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9. [A]와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청자는 '백공'이고, [B]의 청자는 '하늘'이다.
  - ② [A]에는 후회의 정서가, [B]에는 두려움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요약적 제시를 통해 과거의 일을 해명하고 있다.
  - ④ [A]와 [B]의 화자는 모두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초월적인 존재에 기대어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고 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전 소설에서 애정 문제를 다룬 작품은 남녀 주인공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해가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주인공들은 혼사 이전 혹은 이후에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주로 남녀 주인공이 이별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사거나 다른 사람의 질투와 모함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는다. 이때 주인공들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이성(神異性)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 ① '선군'이 집을 떠나 남녀 주인공이 이별한 상황이 '낭자'가 겪는 시련과 역경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옥잠'이 섬돌에 박히는 신이한 일이 여주인공이 타인의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시어머니 정씨'가 '낭자'를 위로하는 것은 자신의 모함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위선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④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등의 단어로 보아, 여주인공은 혼사 이후에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낭자'가 사동했다고 생각하여 결박하고 매질을 가하게 하는 '백공'은 주인공과 갈등하는 주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의 의심은 '낭자'에게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일이었을 거야.
  - ② '매월'은 '낭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 ③ '백공'은 스스로를 변명하는 '낭자'를 후안무치(厚顏無恥)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 ④ '정씨'는 '백공'에게 나중에 후회막급(後悔莫及)의 심정이 될 거라고 절규하고 있어.
  - ⑤ '선군'이 밤에 집을 돌아왔던 것은 '낭자'를 오매불망(寤寐不忘) 그리워했기 때문이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짚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꽃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 남은 여담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랴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뫼를 바라보니  
**㉣**리던 **㉤**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뚫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으랴

내 성이 게으르더니 **㉧**들이 앞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갓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으랴

- 윤선도, 「만흥(漫興)」

\*하얗: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만승: 천자(天子).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나)

내가 의주로 귀양 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세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하기에 **㉨**파라기 수심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인 채소밭에 서까래 몇 개로 정자를 엮고 따로 지붕을 덮어 이를 규정\*이라고 이름지었다.

손님 가운데 나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 나무, 꽃 가운데서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으로 자기 사는 집의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리석게도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것입니까?”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여 이보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는 식물 가운데 굳고 세어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우뚝 홀로 서서 명성과 덕망이 우뚝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먼 **㉩**바닷가로 쫓겨나서,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내가 소나





고 3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전쟁이 나던 1950년 겨울부터 가족과 떨어져 고향 진영에서 남의 집에 얹혀 살던 소년 길남은, 휴전 이듬해가 되어서야 대구 장관동에 세 들어 살고 있던 어머니, 누이, 두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된다.

나 역시 그해는 참으로 지긋지긋한 여름을 보내었다. 허기, 우울, 권태.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증오했고, 나는 고향에서의 주막 더부살이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넘겼다. 나는 늘 가출할 생각만 했다. 허겁지겁 먹는 꿈이 아니면 길수의 유아기처럼 배들배들 말라 굶어 죽는 꿈만 꾸었다. 거리를 걸을 때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였다. 나는 빼 없는 낙지 꼴로 신문을 끼고 노란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낮이 유난히 긴 그해 여름 동안 나는 집을 떠나지 못했고, 허기로 길거리에 쓰러지는 불상사 없이 겨우 살아남았다. 차라리 길거리에 쓰러져, 어느 자식 없는 부잣집 마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데려가 머슴으로라도 부려 먹게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하루 세 끼니 밥을 배부르게 먹는다면 원이 없을 것 같았다. 쓰러진다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왜무 같은 쟁충다리의 길중이는 그해 여름 잘 넘어졌다. 그는 동무가 없어 놀러 다닐 줄을 몰랐고 애늬은이같이 늘 표정도 말도 없었다. 방에 있을 때는 바느질 일을 하는 어머니의 잔심부름을 하고, 쪽마루에 나앉아 무슨 생각이 그리도 깊은지 멍하니 하늘바라기로 시간을 때웠다. 시험지는 늘 백 점만 받아 왔으나 결코 뛰어다니는 법이 없는 그가 걸핏하면 다리를 휘청하여 넘어져 무릎을 깨곤 했다. “아무리 점심밥을 굶는다지만 니놈 다리는 고무다린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게.” 어머니가 이렇게 퇴박을 해도 길중이는 겁먹은 땀그란 눈만 껌벅일 뿐 대답말이 없었다. 길중이가 그렇듯 선례누나 역시 야무졌다. 굶는 봉창이라도 하듯 누나는 공부에만 매달렸다. 누나의 희망은 사범 학교에 진학하여 졸업과 더불어 복사꽃 피는 시골 마을 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길이었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풍금 치며 그렇게 살고 싶어.” 누나가 곧잘 하는 말이었다. 전쟁이 나던 해 누나는 초등학교 오학년이었고, 꿈 많은 소녀 시절에 전쟁의 참상을 혹독히 겪은 탓인지 ‘평화로운 가정’이니 ‘평화로운 시간’이니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란다’는 따위의, 평화란 말을 유독 즐겨 썼다.

그해 여름을 넘길 동안 내가 했던 비행 한 가지는 그 뒤 오랜 동안 내 마음에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그 추억만 떠올리면 괴로움과 연민으로 지금도 얼굴이 달아오른다.

어느 날, 저녁 끼니로 보리죽 한 그릇을 먹고도 나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밤중에 위채 부엌으로 몰래 찾아든 적이 있었다.

속이 쓰려 한밤중에 눈을 뜬 나는 주인집 부엌의 남은 밥을 뒤져 먹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그런 작정을 하기까지 식모 안 씨가 남은 밥을 부엌 어디에 두는지를 엿보아 두었다. 나는 살그머니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반바지를 꺼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몇 시인지 몰랐으나 사위는 고요했다. 나는 우선 변소로 갔다. 먹는 양이 적다 보니 나올 건더기 없는 똥을 누는 채 변소간에 앉아 위채 동정을 살폈다. 방마다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위채 부엌으로 살췍이처럼 다가가 닫힌 부엌문을 살짝 열었다. 안 씨가 쓰는 부엌 골방은 캄캄했다. 나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서 시령\* 위를 더듬었다. 소쿠리가 만져졌다. 안 씨는 밤새 남긴 밤이 설까 보아 밥뚜껑을 덮지 않고 소쿠리로 덮어 두곤 했다. 낫쇠 밥그릇은 밥이 반 그릇쯤 남아 있었다. 나는 손으로 밥을 한 움큼 집어내어 찬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날은 그렇게 반 그릇 밥을 비워 내고 다시 우리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숯불을 피우자 위채 부엌에서, 귀가 소쿠리를 벗기고 밥그릇을 뒤졌다고 안 씨가 종알거렸다. 내가 부리나케 위채 부엌에서 나오느라 소쿠리를 제대로 덮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나는 시침을 때었다.

하루 걸러 이틀 뒤, 밤중에 나는 또 그 짓을 했다. 이제는 좀 더 대답해져 찬장의 김치 사발까지 부뚜막에 내려 반찬과 함께 남은 밥 한 그릇을 몽땅 비웠다. 종지가 있어 손가락으로 건덕지를 집어내어 먹다 보니 풋고추 넣은 쇠고기 장조림이었다. 나로서는 난생처음 먹어 보는 찬이었다. 부자는 쇠고기를 이런 반찬으로도 만들어 먹는구나 싶었다. 다음은 이틀을 건너뛰어 사흘 만에 위채 부엌을 뒤졌다.

세 차례째 그렇게 훔쳐 먹고 난 이튿날이었다. 나는 신문을 받아 팔려고 집을 나섰다. 내가 바깥마당으로 나서자 뒤쪽에서, ㉔ “길남아, 나 좀 보제이.” 하고 누군가가 불렀다. 돌아보니 안 씨였다.

㉕ “부, 불렀습니까?”

나는 말부터 더듬거렸고 얼굴이 불을 켜 듯 달아올랐다. 가슴이 뛰었다.

㉖ “길남아, 니가 밤중에 우리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 안테이.”

“아, 아지메가 봤다 말이지요”

㉗ “내 누구한테도 그 말 안 할 테이 다시는 그런 짓 말거래이. 설령 점심밥을 굶어 배가 쪼매 고프더라도 사나이 대장부가 될라 카모 그 썸은 썸짓이 참을 줄 알아야제. 너거 어무이는 물론이고 성제간도 그렇게 참으니 이 여름철을 힘겹게 넘기고 안 있나. 내 아무한테도 이 말 안 하꾸마.”

안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 빠뜨린 내 어깨를 다독거렸다.

㉘ “알았습디.”

내가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씨 충고에는 도둑이란 말이 한마디도 들어 있지 않았음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고개 빠뜨린 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어느 사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 씨가 내 밥 도둑질을 어머니한테 귀띔했다면 나는 숯포대 회초리로 종아리며 등줄기에 지렁이 자국이 나도록 매를 맞았을 테고, 몇 끼니 밥은 굶게 되었을 터였다. 또한 두고두고 어머니로부터, “집안의 장자가 남의 밥 도둑질까지 하다니.” 하는 지청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 씨는 내 행실을 왜자가지\* 알았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 뒤부터 나는 남의 물건이라면 운동장이나 교실 바닥에 떨어진 동전, 도막 연필이라도 내 것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때 안 씨의 ㉙ 따뜻한 충고 덕분이었다.

- 「마당 깊은 집」

- \*시령: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
- \*지청구: 꾸지람,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 \*왜자가지: 약자지결하게 떠들지.

2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장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작품 속 인물이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⑤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안 씨’는 ‘나’를 다그치지 않고 차분하게 부르고 있다.
  - ② ㉡: ‘나’는 ‘안 씨’의 뜻밖의 부름에 당황하여 말을 더듬고 있다.
  - ③ ㉢: ‘안 씨’는 자신의 짐작을 기정사실화하여 ‘나’를 몰아세우고 있다.
  - ④ ㉠: ‘안 씨’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며 ‘나’를 안심시키고 있다.
  - ⑤ ㉢: ‘나’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말라는 ‘안 씨’의 말에 수긍하고 있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나’는 위체의 부엌에서 음식을 훔치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
  - ② ㉠ 이후 ‘나’는 남의 물건이라면 하찮은 것이라도 훔치지 않게 된다.
  - ③ ㉠으로 인해 ‘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 ④ ㉠에서 ‘안 씨’는 ‘도둑’이라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배려하고 있다.
  - ⑤ ㉠은 ‘나’의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 주고자 하는 ‘안 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마당 깊은 집」에 사는 다섯 가구의 삶은 6:25 이후 대구, 부산 등지에서 전개된 피란민의 삶을 대변한다. 그들은 모두 전쟁으로 인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경제적 결핍의 공간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마당 깊은 집」이 노상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물질적 궁핍 속에서 살아가지만 작품 곳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숨어 있다. 가끔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도와 가는 피란민들의 훈기가 있고,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찾을 수 있다.

- ① ‘나’가 거리를 걸어가갈 때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였’던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군.
- ② 어느 부잣집의 ‘머슴으로라도 부러 먹게 되기를 바랐’던 ‘나’는 결핍의 공간에서 힘겹게 살았겠군.
- ③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바느질 일을 해야 하는 ‘어머니’와 신문팔이를 하는 ‘나’는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인물들이군.
- ④ ‘평화라는 말을 유독 즐겨 썼던’ ‘선례누나’는 고된 피란살이 속에서도 소박한 꿈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군.
- 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주인집의 ‘밥 도둑질’을 했던 ‘나’를 다독여 주는 ‘안씨’에게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일을 타고 오른다.  
 흔들리는 생애(生涯)의 중량(重量),  
 확고(確固)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암벽(岩壁)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無明)의 별레처럼 무명(無明)을**  
**더듬는다.**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암벽(岩壁)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接近)한다.  
 행복(幸福)이라든가 불행(不幸) 같은 것은  
 생각지 않는다.  
 발 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

- 「등산(登山)」

(나)  
**누룩 한 덩이**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갈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 화법과 작문

[35~37] 다음은 발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건강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들을 봐 주시겠습니까?



왼쪽 사진은 약 100여 년 전 담배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네요. 한쪽은 고통스러운 노동에, 다른 한쪽은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너무 달라 보이는 이 두 사진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은 얼마 전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중독에 걸린 아이들의 척추가, 웅크리고 앉은 채 중노동에 혹사당하던 아이들의 척추와 매우 닮았다는 것입니다. IT의 발달이 오히려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꼴이 된 것이죠.

그럼 세계적인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어린이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보유와 사용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과연 우리 청소년들, 건강할까요?

디지털 기기로 인한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목 디스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목 디스크 환자 수가 2008년 4,545명에서 2011년에는 5,587명으로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급속도로 디지털 기기가 보급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목뼈는 원래 자연스러운 C자 형태이지만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지속되면 이른바 거북목 혹은 일자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디스크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깨와 손의 통증, 두통, 전신 피로로까지 이어진다고 전문의들은 설명합니다. 특히 이러한 질환은 청소년들의 체형 형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질환을 예방하고 디지털 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딱딱한 의자나 바닥에 앉아 등을 기댄 채 꼳꼳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은 자연스럽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겨 주고 시선은 15도 정도 아래로 유지합니다. 또한 자주 스트레칭을 하고, 자세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디지털 기기의 적당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35. 발표자가 사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진 자료를 제시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한다.
- ② 통계 자료를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인다.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방식으로 화제를 이끌어 간다.
- ⑤ 청중에게 익숙한 연구 결과를 새롭게 해석해 참신성을 높인다.

36. <보기>의 자료를 접한 청중이 발표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디지털 기기에 많이 의존하는 젊은 층에서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 등 인지 능력의 감퇴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불안감과 우울함을 느끼는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 신문

- ① 디지털 기기 사용은 문제점뿐만 아니라 유익한 점도 있음을 균형 있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 ② 디지털 기기 사용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설명하면 어떨까요?
- ③ 디지털 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설명하면 어떨까요?
- ④ 디지털 기기 사용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어떨까요?
- ⑤ 디지털 기기 사용의 부작용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나타남을 설명하면 어떨까요?

37.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토의 참여자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수학여행 때 방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정 방법을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면, 이후 전체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진아:**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수학여행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역시 숙소에서 자유 시간입니다. 원하는 친구끼리 방을 배정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수민:**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방마다 고른 인원수 배정이 어렵고 소외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작위로 배정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평소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영:** 그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끼리 같은 방을 쓰도록 배정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사회자:** 아, 잠깐만요, 배정 방법에 대해 좀 더 제안을 받아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친분을 고려해 희망대로 배정하자는 의견과 무작위로 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수:** 여행지를 다니면서 비행과 추태로 학교를 망신거리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행을 막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 ① 사회자는 토의 진행의 순서를 고려해 토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 ② 진아는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수민은 진아의 의견을 보완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아영은 수민의 의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
- ⑤ 정수는 토의의 흐름에서 벗어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상황의 시간적 선후 위치를 판가름하는 뜻말이 되는 때를 '기준시'라고 한다. 시제에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라고 말할 때의 과거, 현재, 미래는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다. 즉,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때(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황이 일어난 때(사건시)가 그 시점과 같은 때인 현재라든가, 그보다 앞선 때인 과거, 그보다 뒤인 때인 미래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는 발화시가 기준시가 되는데 그것을 '절대 기준시'라 하고, 발화시가 아닌 안은문장의 사건시로 기준을 삼은 것을 '상대 기준시'라 한다.

- (1) 응, 나 지금 책 읽어.
- (2) 가. 형이 와서 내가 읽는 책을 빼앗아 갔다.  
나. 형이 와서 내가 읽는 책을 빌려 달라고 한다.

(2)-가와 (2)-나의 '읽는'을 흔히 다 같이 현재라 한다. 그러나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보면 (2)-가의 '읽는'은 '빼앗아 갔다'와 같은 시기인 과거의 상황이다. '읽는'이 현재인 것은 '빼앗아 갔다'를 현재로 삼았을 때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읽는'을 현재로 이해하는 것은 절대 기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빼앗아 갔다'의 상황을 현재로 하는 상대 기준시에 의해서다.

이처럼 상대 기준시에 의한 시제를 '상대 시제'라 하고, 절대 기준 시에 의한 시제를 '절대 시제'라 한다. (1)의 '읽어'는 절대 시제로서의 현재이고, (2)-가와 (2)-나의 '읽는'은 상대 시제로서의 현재인 것이다.

- (3) 가. 음악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즐겁다.  
나. 음악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즐거웠다.

(3)-가와 (3)-나의 '듣고 있으니'는 형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준시로 보면 각각 현재와 과거로 구별된다. 시제를 절대 시제로만 이해하려 하면, 형태가 같은데 시제가 다른 이유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 (3)-가와 (3)-나의 '듣고 있으니'는 상대 시제로는 모두 현재다. 상대 시제의 설정은 이러한 혼란을 막아 주면서, 시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길을 열어 준다.

시제 형태라고 해서 반드시 시간과 관련되는 의미만 표시하지는 않는다.

- (4) 지구는 태양을 돈다.

(4)의 예는 현재 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 시제의 의미를 주기는 어렵다. (4)의 '돈다'가 현재 시제가 되려면 '돌았다, 돌겠다'와 계열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지구가 과거에는 돌았지만 현재에는 돌지 않는다는지 하는 일이 있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는 시제 형태가 지시성이 결여된 상황에 쓰인 것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서점은 책을 ㉠ 사는 사람들로 붐볐다.
- 사장님은 손님을 ㉡ 맞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다.
- 너무 바쁜 나머지, 그는 ㉢ 빌려 온 책을 반납하지 못했다.
- 일주일만 지나면 뒷산에 ㉣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겠다.
- 그는 숙제를 하지 않아서 학교에 가면 ㉤ 혼날 거라고 생각했다.

- ① ㉠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 시제이다.
- ② ㉡은 절대 시제로는 과거 시제, 상대 시제로는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 ③ ㉢은 안은문장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 시제이다.
- ④ ㉣은 절대 시제로는 미래 시제, 상대 시제로는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 ⑤ ㉤은 '하지 않아서'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36. 윗글의 (4)의 예로 볼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문장은 현재 시제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 문장이 현재 시제의 의미가 되려면 반드시 ( ㉠ )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 ① 모든 액체 중 물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 ② 과거에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았다.
- ③ 미래에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를 것이다.
- ④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미래에도 변함이 없다.
- 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37.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 중 부사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접미사 '-적(的)'이 붙은 파생어는 대개 관형사가 되거나 명사가 되고 드물게는 부사가 된다. 관형사임은 체언을 꾸며 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명사임은 조사가 결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부사임은 용언 서술어나 다른 부사어를 꾸며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그의 견해는 오직 ㉠ 수학적 관점만 고려한 것이다.
- 그 가게에서는 학용품을 ㉡ 비교적 저렴하게 팝니다.
- 그들의 행위는 ㉢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 ㉣ 가급적 식사를 집에서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 유령은 ㉤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현상이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및 해설

1	②	2	⑤	3	②	4	③	5	④
6	⑤	7	③	8	②	9	①	10	⑤
11	②	12	④	13	④	14	①	15	③
16	⑤	17	②	18	②	19	②	20	③
21	②	22	④	23	①	24	③	25	⑤
26	③	27	②	28	③	29	⑤	30	①
31	⑤	32	③	33	②	34	②	수고하셨습니다.	

[1~3] 독서-독서이론

[지문 분석]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오래된 미래』는 내가 여러 번 읽은 책 중의 하나이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파괴와 서구식 발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오래된 미래』의 주제)**하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죽어 가는 생태 환경과 전통문화에 대한 저자의 따뜻한 애정,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애타는 호소(글쓴이가 『오래된 미래』에서 감동을 받은 부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오래된 과거의 허말라야 산맥 기슭 오지의 작은 마을 라다크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인류가 미래에 택해야 할 삶의 모델”이라는 저자의 강력한 주장(글쓴이가 공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이 가지 않았다. 좋게 보면 목적이적이고 낭만적이지만,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현실성 없는 유아적 몽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글쓴이가 공감하지 못한 이유)**이다.

그런데 최근 ‘문명과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와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나는 이 책을 다시 정독하게 되었고, 이 책의 내용이 유아적 몽상이라고 했던 나의 평가를 수정하게 되었다. **생명에 대한 그녀의 신념하면서도 깊은 사유가 예언자적 사명 의식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수정한 이유)**이다.

근래 들어 생태 환경서가 많이 나왔지만 그 대부분은 무미건조한 학술서나 과학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책들과 달리 『오래된 미래』는 **생태 환경에 관한 고도의 인문적 성찰(『오래된 미래』와 다른 생태 환경서와의 차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더 절실하고 감동적이며,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언뜻 보기와는 달리 생태 환경 문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이기에 앞서 **인문학적인 것(글쓴이가 생각하는 생태 환경 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점에서 **한 인류 문화학자(헬레나 노르베리-호지)**가 쓴 이 책은 오늘날 심각한 병이 든 생태 환경을 살려 낼 수 있는 진단인 동시에 하나의 처방입에 틀림없다.

나는 노르베리-호지가 말하는 환경 문제의 대안이 아직도 현실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과학적 세계관과 기술에 근거한 문명을 폐기하라는 그녀의 제안은 21세기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노르베리-호지의 대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①)**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그녀가 제시하는 대안으로써만 가능(노르베리-호지의 대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②)**하다. 이 책은 결정적 위기에 처한 문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지문 정리]

- 주제: 『오래된 미래』에 대한 독서 감상
- 해제: 이 글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오래된 미래』에 대한 독서 감상을 적고 있다. 글쓴이는 처음 이 책을 읽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노르베리-호지의 애정과 호소에 감명을 받으면서도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아적 몽상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가졌다. 그러다가 저자와의 만남 이후에 다시 책을 정독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 책이야말로 오늘날 심각한 병이 든 생태 환경을 살려낼 수 있는 진단인 동시에 하나의 처방이라고 여기게 된다. 새로운 경험을 한 후 책을 다시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다.

1. <답> ②

<정답 풀이>

글쓴이는 처음에 『오래된 미래』를 읽었을 때 그 책의 내용이 낭만적이지만 현실성 없는 유아적 몽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자의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후에 다시 책을 정독하고 책에 담긴 깊은 사유를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글쓴이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책의 내용을 다시 구성하여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목을 통해 책의 내용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좋은 독서 방법이지만, 이 글에서 언급된 방법은 아니다.
- ③ 이 글에서는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다른 책과 비교하며 읽는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저자와 만나기는 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하여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아니다.
- ⑤ 글쓴이는 『오래된 미래』를 여러 번 읽은 책 중의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독서 과정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저자를 만나고 난 후 느낀 바가 있어 다시 읽게 된 것이다.

2. <답> ⑤

<정답 풀이>

이 글의 글쓴이는 『오래된 미래』가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보여 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한 대안이 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기>의 ‘순진한 독자’는 책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⑤와 같이 조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글이 실린 매체에 따라 독서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글이나 <보기>에서는 그러한 매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①과 같이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보기>의 ‘순진한 독자’는 책이 주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해서 문제인 것이지,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독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인 것은 아니다.
- ③ ‘순진한 독자’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그에게 세부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파악하라고 충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순진한 독자’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점과 관련하여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답> ②

<정답 풀이>

3문단의 '생태 환경서가 많이 나왔지만 그 대부분은 무미건조한 학술서나 과학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글쓴이가 인문학적 영역을 무미건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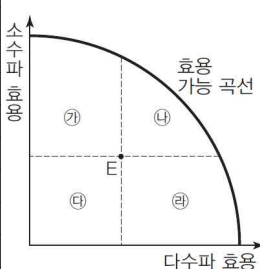
- ① 4문단에서 노르베리-호지의 대안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노르베리 호지의 대안으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1문단에서 글쓴이는 '죽어 가는 생태 환경과 전통문화에 대한 저자의 따뜻한 애정,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애타는 호소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 ④ 글쓴이는 노르베리-호지의 대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정적 위기에 처한 문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하였다.
- ⑤ '오래된 미래'는 생태 환경에 관한 고도의 인문적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더 절실하고 감동적이며,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언뜻 보기와는 달리 생태 환경 문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이기에 앞서 인문학적인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4~7] 독서-사회

[지문 분석]

공공재에 관한 의사 결정은 순수 경제 이론인 합리성에 기초한 모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워 **투표 등과 같은 정치적 과정(공공재에 관해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공공재의 적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는 일련의 이론들(공공 선택 이론의 개념)이** 나타났는데, 이를 총칭하여 공공 선택 이론이라고 한다. 공공 선택 이론은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공재 공급의 최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이론으로, 경제학 분야에서 발전해 오다가 1960년대부터 공공 선택이라는 용어가 행정학에 등장하게 되었다. 공공 선택 이론은 대략 세 가지의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투표를 통한 결정 방법, 개체주의적 방법, 유기체적 접근 방법**이 그것이다.

**투표를 통한 결정 방법(공공 선택 이론에 접근하는 방법 ①)**은 만장일치 제도나 다수결 투표 제도와 같은 투표를 통해 공공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과 같이 자원 배분이 E에서 이루어지는 효율 가능 곡선이 있다고 하자. 효율은 E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크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 따라 소수와 효용과 다수와 효용은 달라질 수 있다. 만장일치 제도는 **모든 사람의 찬성을 이끌어 내어 어떤 사람의 소득도 감소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제도(만장일치 제도의 장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반대해도 새 정책이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책이 좋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기 쉽다.(만장일치 제도의 단점)** 그래서 다수결 투표 제도를 일반적으로 사용한



다. 그러나 **다수결 투표에 의한 결정은 승자에게는 만족을 주지만 패자에게 불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다수결 제도의 미비점)**에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 **개체주의적 방법(공공 선택 이론에 접근하는 방법 ②)**에서는 집단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든다고 본다. 결정 비용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합의를 위해 필요한 설득 및 합의를 위한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한 비용, 전략적 협상이나 정치적 계약을 위한 비용 등(결정 비용의 개념)**을 말한다. 그래서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결정 비용은 보다 많이 든다. 외부 비용이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느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 그 개인에게 발생한 비용(외부 비용의 개념)**을 의미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외부 비용은 증가한다. 다시 말해 집단 선택에 요구되는 찬성자 수가 많을수록 결정 비용은 증가되고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 이러한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정치적 비용 곡선의 개념)**이 정치적 비용 곡선인데, 이 곡선이 최저점일 때를 최적의 공공 선택으로 본다. **유기체적 접근 방법(공공 선택 이론에 접근하는 방법 ③)**에서는 정부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의 집합체로 보지 않고 정부도 그 스스로의 선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로 본다. 그래서 **정책의 논리적 측면보다는 집행 가능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유기체적 접근 방식의 특징)**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는 특정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선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적 합리성 내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익의 관점에서 결정(유기체적 접근 방식에서의 결정 방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재의 선택은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다. 그러나 **다수결 투표에 의한 결정은 승자에게는 만족을 주지만 패자에게 불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다수결 제도의 미비점)**에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

**개체주의적 방법(공공 선택 이론에 접근하는 방법 ②)**에서는 집단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든다고 본다. 결정 비용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합의를 위해 필요한 설득 및 합의를 위한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한 비용, 전략적 협상이나 정치적 계약을 위한 비용 등(결정 비용의 개념)**을 말한다. 그래서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결정 비용은 보다 많이 든다. 외부 비용이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느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 그 개인에게 발생한 비용(외부 비용의 개념)**을 의미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외부 비용은 증가한다. 다시 말해 집단 선택에 요구되는 찬성자 수가 많을수록 결정 비용은 증가되고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 이러한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정치적 비용 곡선의 개념)**이 정치적 비용 곡선인데, 이 곡선이 최저점일 때를 최적의 공공 선택으로 본다.

**유기체적 접근 방법(공공 선택 이론에 접근하는 방법 ③)**에서는 정부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의 집합체로 보지 않고 정부도 그 스스로의 선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로 본다. 그래서 **정책의 논리적 측면보다는 집행 가능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유기체적 접근 방식의 특징)**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는 특정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선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적 합리성 내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익의 관점에서 결정(유기체적 접근 방식에서의 결정 방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재의 선택은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주로 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기업의 행태 분석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정부의 정책은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거나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 탐색에 그쳤다. 그러나 공공 선택 이론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달리 **비시장적 의사 결정 내지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투표자, 정치가, 관료 등 참가자의 선택 행위에 관심을 둔다.(전통적인 경제학과 공공 선택 이론의 차이점)** 이런 점에서 공공 선택 이론은 **공공 자원의 배분 최적화를 위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공공 선택 이론의 의의)**

[지문 정리]

- 주제: 공공 선택 이론의 접근 방법과 유용성
- 해제: 이 글은 공공 선택 이론의 소개와 접근 방법, 그리고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공 선택 이론은 공공재의 적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는 일련의 이론들을 총칭한다. 공공 선택 이론은 대략 투표를 통한 결정 방법, 개체주의적 방법, 유기체적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투표를 통한 결정 방법은 만장일치 제도나 다수결 투표 제도와 같은 투표를 통해 공공 선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개체주의적 방법은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인 정치적 비용 곡선이 최저점일 때를 최적의 공공 선택으로 보는 입장이다. 또 유기체적 접근 방법에서는 특정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선호에 기초하기보다는 사회적 합리성이나 국가적 차원이라는 공익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공공 선택 이론은 공공 자원 배분

의 최적화라든지,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4. <답> ③  
<정답 풀이>

마지막 문단의 '공공 선택 이론은 공공 자원의 배분 최적화를 위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에서 공공 선택 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선택 이론이 지닌 폐해에 대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의 '공공재의 적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는 일련의 이론들이 나타났는데, 이를 총칭하여 공공 선택 이론이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5문단의 '공공 선택 이론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달리 비시장적 의사 결정 내지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투표자, 정치가, 관료 등 참가자의 선택 행위에 관심을 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4문단의 '정부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의 집합체로 보지 않고 정부도 그 스스로의 선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로 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2문단의 '만장일치 제도는 모든 사람의 찬성을 이끌어 내어 어떤 사람의 소득도 감소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반대해도 새 정책이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책이 좋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기 쉽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답> ④  
<정답 풀이>

다수결 투표 제도에서는 승자, 즉 다수파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수결 투표 제도에서는 공공재에 관한 의사 결정이 다수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그래프상에서 다수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영역은 ㉠ 또는 ㉡이다.

<오답 풀이>

㉢는 소수파의 효용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나 다수파의 효용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는 소수파의 효용과 다수파의 효용 모두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6. <답> ⑤  
<정답 풀이>

정치적 비용 곡선은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이므로,  $A + B$ 는 정치적 비용 곡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A가 상승했다는 것은 결정 비용이 증가했다는 의미이므로 정치적 비용 곡선은 증가하여 위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3문단의 '결정 비용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합의를 위해 필요한 설득 및 합의를 위한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한 비용, 전략적 협상이나 정치적 계약을 위한 비용 등을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외부 비용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느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 그 개인에게 발생한 비용이므로, 모두 찬

성하면 외부 비용은 0이 될 것이다.

- ③ 3문단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외부 비용은 증가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3문단의 '이러한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이 정치적 비용 곡선인데, 이 곡선이 최저점일 때가 최적의 공공 선택으로 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답> ③  
<정답 풀이>

도로 건설이라는 사안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활동에 참여하여 비용을 치른 경우이므로 외부 비용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 제반 시설 비용은 개인에게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다.
- ②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된 물질로 인해 주변의 농민들이 본 손해를 개인에게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니다.
- ④ 이사 가기 위해 여러 이사 업체의 견적을 알아보기 위해 들인 노력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한 비용이다.
- ⑤ 아파트 하자 보수를 맡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인 시간은 구성원들의 상호 합의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므로 결정 비용에 해당한다.

[8~11] 독서-과학

[지문 분석]

많은 고대 문명의 유물에서 다양한 모양의 주사위가 발견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는 기원전 275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위가 출토되었고, 인더스 유적지에서도 다양한 모양의 주사위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유적인 안압지에서 14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출토되었다. 고대인들은 **유산이나 전리품을 나눌 때와 같이 공정한 분배가 필요한 경우(고대인들이 주사위를 사용한 이유)** 주사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고대인들이 **주사위를 던져 어떤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모두 같다는 무작위성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주사위 사용의 의의)**한다. 주사위 게임과 같이 **일어날 확률이 같고 각각의 현상이 우연적으로 발생(무작위 추출법)의 개념**하는 무작위 추출법과 관련한 고대의 유물과 기록이 많이 발견되었지만, 그 현상에 대한 수학적 탐구는 한참 뒤에야 이루어졌다. **가령(예시의 방법 사용)** 주사위를 던져 어떤 수가 나올 것인가를 맞히는 주사위 게임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유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수학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주사위 게임)에 대한 수학적 연구는 16세기에 이르러야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탈리아의 수학자 가르다노(주사위 게임에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밝힌 학자)**는 「게임의 확률 이론」이라는 저술을 통해 주사위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밝힌 바 있다.

이후 17세기에 와서야 **파스칼(무작위 추출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시작한 학자)**에 의해 무작위 추출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당시 드 마레는 유명한 수학자인 페르마에게 다음과 같은 상금 분배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페르마와 파스칼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확률) 개념이 생겨나게 된 계기**에서 오늘날의 '확률'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나게 된다.

드 마레가 제기한 **문제(상금 분배 문제)**를 오늘날의 상황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험에서 다섯 번을 먼저 이기는 사

람에게 100만 원의 상금을 주려고 한다. 그런데, A가 4승을 하고, B가 3승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시합이 중단되었다. 제시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100만 원의 상금을 두 사람에게 분배하려고 하는데, 과연 몇 대 몇으로 나누어 주어야 할까?” 당시 사람들은 이긴 시합의 수에 따라 4 : 3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 앞으로 이겨야 할 시합의 수를 고려하여 2 : 1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파스칼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하였다. “다음 시합이 속행된다고 할 때,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A가 이길 가능성과 B가 이길 가능성은 같다. 만약 다음 시합에서 A가 이긴다면 A가 먼저 5승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절반이므로 **우선 A가 상금 50만 원을 가져간다.(상금 분배 과정 ①)** 만약 속행된 다음 시합에서 B가 이긴다면, 상금 50만 원이 걸린 시합에서 두 선수가 각각 4승씩을 한 상황이 된다. 이 경우 다음 시합에 두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동일하므로 **각각 25만 원씩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된다.(상금 분배 과정 ②)** 결국 A는 다음 시합에서 이길 경우의 50만 원과 다음 시합에서 지고 그 다음 경기에서 이길 경우의 25만 원을 가지게 된다. B는 두 번 연속으로 이길 경우의 25만 원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금은 75 : 25, 즉 3 : 1로 분배(상금 분배에 대한 파스칼의 결론)**하면 된다.”

파스칼은 만약 시합이 계속 진행될 경우, **각각의 시합에서 두 사람의 이길 가능성은 같다고 생각(파스칼의 결론 도출 과정 ①)** 하였다. 그리고 파스칼은 이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상금을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파스칼의 결론 도출 과정 ②)**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우연적 현상을 구조화하는 도구로서 수학적 확률 개념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지문 정리]

- 주제: 수학적 ‘확률’ 개념이 탄생하게 된 과정
- 해제: 이 글은 오늘날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수학의 ‘확률’ 개념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오늘날의 확률 개념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무작위성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무작위성과 관련된 유물과 기록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작위 추출법에 대한 체계적인 수학적 연구는 17세기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특히 파스칼은 드 마레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함으로써 오늘날의 수학적 확률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8. <답> ②

<정답 풀이>

이 글에서 중심 화제와 관련된 견해를 인용한 전문가는 파스칼뿐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인용된 파스칼의 말은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중심 소재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고대 문명의 유물인 주사위가 지닌 의미를 수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 ③ 이 글은 오늘날의 ‘확률’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발전하는 과정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과거 드 마레와 파스칼이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현재적 시점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드 마레와 파스칼의 일화를 제시하여 오늘날의 확률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9. <답> ①

<정답 풀이>

1문단에는 고대 문명의 유물에서 다양한 주사위의 종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고, 2문단에서 주사위 게임이 유행하던 것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주사위 게임의 유행 시기는 16세기 이후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③ 1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주사위를 던져 어떤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같다는 무작위성을 알고 있었으며, 공정한 분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속성을 지닌 주사위를 사용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④ 2, 3문단에 따르면 무작위성에 대한 수학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6세기 가르다뇨에 의해서이며 보다 체계적인 연구는 17세기 파스칼에 의해서라고 언급되어 있다.

⑤ 3~6문단을 통해 무작위성에 대한 수학적 연구가 가르다뇨, 파스칼 등을 거쳐 오늘날 확률이라는 수학적 개념의 기초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답> ⑤

<정답 풀이>

[A]에 제시된 파스칼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A와 B가 이길 각각의 경우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파스칼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기>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예방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각각의 기댓값을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방 조치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300만 원이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피해액은 400만 원(비가 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은 800만 원이지만 일기 예보의 정확성이 50%이므로 예상 피해액은 400만 원이 된다.)이므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풀이>

① 일기 예보의 정확성이 50%이므로 비가 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또 단순히 비가 올 확률만을 고려하였을 뿐 예방 조치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의 수와 기댓값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

② 비가 올 확률과 예방 조치 유무에 따른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

③ 비가 온 경우와 오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만, 정작 기댓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방 조치 유무를 고려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

④ 비가 올 확률과 오지 않을 확률을 무시한 채 단순히 피해액과 예방 조치에 지출되는 비용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그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이익이 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없다.

11. <답> ②



<정답 풀이>

‘밝히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다의어로 ㉠에서는 ‘진리, 가치,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하여 드러내 알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이다.

<오답 풀이>

- ① ‘눈, 신경, 두뇌 따위의 작용을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이다.
- ③ ‘빛을 내는 물건에 불을 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이다.
- ④ ‘드러나게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이다.
- ⑤ ‘자지 않고 지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이다.

[12~17] 독서-인문

[지문 분석]

(가)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철학적 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자유 의지론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적 상황에 부딪혔을 때 흔히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할지 여러 가지로 숙고한 끝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사실(자유 의지론에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을 통해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자유 의지론의 주장)고 주장한다. 이때 숙고한다는 것은 선택에 의해 결정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음(‘숙고한다’의 의미)을 의미한다. 즉 어떤 행위자가 어떤 행위 A를 자유 의지에 따라서 했다는 것은 그가 실제로 A를 행했지만, 그 당시 A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따라서 그가 자유 의지에 따라 A를 행하였고, A가 부도덕한 행위라면 그에 대해 행위자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반면 그가 자유 의지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어린아이의 행위나 정신 이상자의 행위(자유 의지에 따라 행하지 않은 행위의 예)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 자유 의지론자인 칸트는 도덕적 원칙이 존재하며 그 원칙을 준수하는 것(칸트가 주장한, 모든 인간의 윤리적 책무)이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공통의 윤리적 책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만일 X가 존재하지 않으면 Y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X가 Y의 존재 근거가 된다면, 거꾸로 Y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X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칸트는 이에 따라서 자유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한 도덕적 책임은 물론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훼손하지 말라 등의 윤리적 명령에 의해 표현되는 도덕적 원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도덕 원칙이 존재하는 한 정상적인 이성을 갖춘 사람이 자신이 생각한 바를 실제로 실천에 옮겼다면 그 행위에 대한 도덕성을 반드시 문체 삼을 수 있다고 주장(도덕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자유 의지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했다.

그런데 자유 의지론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인간이 한 모든 행위가 앞서 언급한 어린아이의 행위라든가 정신 이상자의 행위(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건 우리는 실제로 한 행위만을 하도록 결정되어 있기 때문(‘결정론’의 입장)이다. 이런 관점의 입장을 결정론이라고 한다. 이 입장에 의하면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사건이 일정한 자연법칙하에서 원인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결과 이외의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정론에서는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위도 인과 법칙이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보았다. 물리적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의식과 정신의 세계에도 보편적 인과 법칙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결정론에서는 인간에게는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자유인 자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론자의 관점에서도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결정론자들은 그렇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그가 그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부도덕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차후에 그와 비슷한 부도덕한 행위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결정론자들이 처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이다. 곧 도덕적 응징이나 법적인 처벌이 어떤 행위자가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한 응보로서가 아니라 미래에 미칠 효과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나) 자유 의지와 결정론의 관계에 대한 주장은 다양하다. 모든 사건에는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결정론자)가 있고,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니는 특이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학자(자유 의지론자)도 있다. 이와 같은 결정론자들과 자유 의지론자들은 대부분 자유 의지와 결정론이 서로 배타적 관계이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여긴다. 결정론자 중 그리스의 원자론자들(결정론자 ①)은 사건들의 발생은 기계의 운동처럼 서로 관련되어 있어 의지에 따른 행위란 없다(원자론자들의 주장)고 했다. 사람의 몸도 원자의 배열에 불과하며, 어떤 일을 할 때 작용하는 정신 활동도 정신 원자의 운동에 의해 정해진다고 했다. 현대의 정신 의학자인 호스퍼스(결정론자 ②)는 인간의 행위를 시겟바늘에 비유하여, 시겟바늘은 시계 표면에서 자유로운 듯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이 내부 부속품에 의해 결정되듯이 인간의 행위도 인간의 내부에 있는 강력한 무의식적인 힘(결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행위를 야기하는 힘)에 의해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리 내부에 있는 무의식적인 힘이 인간 행위의 원인이 되므로, 자유 의지와 결정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 의지론자인 캠벨(자유 의지론자)은 다른 이유로 자유 의지와 결정론이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은 자유 의지를 자아 활동으로 간주했다. 이런 자아 활동은 행위자의 본성에 부응하는 그런 행위와는 다르다. 타고난 본성에 따른 행위에는 자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자아는 본성을 감시하며 의무감에서 어떤 결심을 하도록 한다.(캠벨이 주장하는 자아의 기능) 본성에서 유래하는 경향성과 대비되는 자아 활동은 창의적 활동과는 깊은 관련을 맺는다. 그래서 그는 자유 의지란 창의적 활동이라는 성질을 지닐 때만 의미를 지니며(자유 의지가 의미를 지니는 경우), 그의 의미는 행위자의 직관성을 띤 실천적 의식을 통해서만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그는 자유 의지와 결정론의 양립 불가능성을 인간이 지닌 창조적 활동(캠벨이 자유 의지와 결정론의 양립 불가능성을 옹호한 근거)을 들어 옹호했던 것이다.

그런데 결정론과 자유 의지 모두를 포기하기 힘들어한 철학자들은 둘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홉(결정론과 자유 의지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한 학자 ①)이다. 홉은 먼저 결정론과 자유 의지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어떤 행위에 원인이 있다면 자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자유 의지의 반대말을 원인이 아니라 강제라고 보았다.

④ 그리스의 원자론자들은 인간의 정신 활동도 정신 원자의 운동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모든 행위가 물리적 작용이므로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⑤ 호스퍼스는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내부에 있는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15. <답> ③

<정답 풀이>

자유 의지론에서는 이성 능력을 지닌 인간의 행위와 이성 능력을 지니지 않은 인간의 행위를 구분하여 전자만이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정론에서는 이성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자유 의지론에서는 인간이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결정론에서는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의식과 정신의 세계, 자연 세계가 모두 인과 법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였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자유 의지론에서는 인간은 할 수 있는 여러 행위 중 숙고하여 하나만 선택하여 행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결정론에서는 인간은 어떠한 행위 이외에 다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자유 의지론에서는 인간이 자유 의지에 따라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가)의 4문단에 따르면, 결정론은 인간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면 차후에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16. <답> ⑤

<정답 풀이>

프랭크퍼트에 따르면, 민호가 로봇을 창문 밖으로 던지려는 욕구는 1차적 욕구에 해당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려 로봇을 창문 밖으로 던지지 않으려고 한 욕구는 2차적 욕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만 자유 의지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칸트는 자유 의지를 지닌 사람이 자신이 생각한 바를 실천에 옮긴 경우에만 그 행위에 대한 도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민호가 로봇을 던지려고 생각한 것은 도덕적 책임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② 결정론자는 민호가 로봇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겠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미래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응징이나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캄벨은 민호가 로봇을 던지는 것을 타고난 본성인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라고 보았다면 이것은 창의적 활동이 아니므로 자유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④ 흄은 민호가 로봇을 던지지 않은 것이 어머니의 말씀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강제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가 그 행위를 하지 않

은 것은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라 보지 않았을 것이다.

17. <답> ②

<정답 풀이>

①과 ‘그는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의 ‘삼다’는 모두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 풀이>

① ㉠은 ‘책임이나 의무를 맡다.’의 의미로 쓰였지만, ‘갑자기 그들과 원수를 진 관계가 되다.’의 ‘지다’는 ‘어떤 좋지 아니한 관계가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은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또는 그것을 가하다.’의 의미로 쓰였지만, ‘선수가 결승점에 못 미처 넘어지고 말았다.’의 ‘미처다’는 ‘공간적 거리나 수준 따위가 일정한 선에 닿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은 ‘관계나 인연 따위를 이루거나 만듦.’의 의미로 쓰였지만, ‘그 연극은 주인공의 독백으로 끝을 맺었다.’의 ‘맺다’는 ‘하던 일을 끝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은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의미로 쓰였지만, ‘아무도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따를 수 없다.’의 ‘따르다’는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18~21] 문학-고전소설

[지문 분석]

남자(숙영)가 곧 상공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제가 무슨 죄가 있기에 밤중에 이런 꾸중으로 부르셨습니까?”

하고 여쭙었다. 그러자 백공(선군의 아버지이자 숙영의 시아버지)이 크게 노하여,

“수일 전부터 너에게 수상한 일이 있기에 너에게 물었더니 네 말이 선군(숙영의 남편)이 떠난 후 적막하여 매월(집안의 하인. 선군을 옹호하여 숙영을 모함함)과 함께 얘기를 나눴다고 하길래 믿기지가 않아서 매월을 불러서 힐문하니 매월이는 요사이 일체 네 방에 가지 않았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는 일일 것 같아 여러 날을 잘 살펴온즉 분명 어떤 놈이 네 방에 출입하는 것이 틀림없거늘(숙영이 외간 남자를 끌어들었다고 오해하는 백공) 네 무슨 얼굴을 들고 변명하려 드느냐?”

하였다. 그러자 남자가 울면서 변명하니 백공이 크게 꾸짖어 말했다.

“닥쳐라!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본 일인데, 네가 끝 끝내 나를 속이려고 하니 어찌 통해(痛駭)(몹시 이상스러워 놀라다. 문맥상 ‘원통하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치 아니하라. 양반의 집에 이런 해괴한 일이 있기는 드문 법, 실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네가 상통한 놈의 성명을 빨리 대라.”

하는 시아버지의 호령이 서릿발 같았다. 그러나 남자는 오히려 낭랑하게,

“아무리 시부모님 간택으로 유례를 이루지 못한 며느리(집안의 소개가 아닌, 숙영과 선군과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였음을 의미)라 할지라도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억울한 누명을 발명(發明)하기도 창피하오나, 아버님께서 자세히 조사해 보십시오. 이 몸이 지금 비록 인간으로 있사오나, 저의 빙옥(氷玉) 같은 정절(貞節)로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천수(潁川水)가 멀어서 귀를 씻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다만 죽어 모르코자 합니다.(죽음을 각오하면서 절

백을 주장하는 숙영)”  
 하고 대답하였다. 시아버지 백공이 **비복(남녀 하인)**을 호령하여 남자를 결박하라고 명하니, 비복들이 일시에 달려들어서, 머리를 산발하여 층계 아래 꿰어 앉혔다. 남자의 이런 몰골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가련하였다.**(서술자의 개입) 백공이 크게 노하여,

“네 죄상은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으니, 너와 사통한 놈의 성명을 빨리 대라.”

하고 다그치며 매질을 하니 남자의 백옥 같은 귀 밑에 흐르는 것은 눈물이요, 옥같이 흰 살결은 유혈이 낭자하였다. 남자는 악형의 고통을 참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저번에 **낭군(선군)이 길 떠난(숙영과 백공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간 선군)** 밤과 이튿날 밤 두 번, 겨우 삼십 리쯤 가다가 숙소를 정하였으나, **저를 잊지 못해 밤중에 집으로 몰래 돌아왔기에, 제가 한사코 잘 말해서 도로 보낸 일은 있습니다.**(밤에 숙영의 방을 찾아온 남자가 선군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숙영) 그런 일이 있었으나 제 어린 소견으로는 시부모님께 꾸중을 들을까 겁을 내어 지금까지 고하지 않고 있었더니, 조물(造物)이 그것을 밋게 여기시고 귀신이 그것을 시기해서, 이런 씻지 못할 누명을 입은 듯하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찌 해명할 길이 없습니까마는 밝은 명천은 소소히 살펴 아시오니 아버님께서는 그런 사실과 저의 정상을 살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백공은 점점 더 노하여(숙영의 말을 믿지 않는 백공)** 매를 든 비복을 돌려해서 헤아려가며 혹독한 매질을 가하였다. 남자가 하는 수 없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아아, 공명한 창천이여! 무죄한 이 내 마음을 굶어 살피소서. **오월비상지원(五月飛霜之怨)(오월에 서리가 내릴 만큼의 원한)**과 **십년불우지원(十年不雨之怨)(십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만큼의 원한)**을 뒤라서 풀어 주겠습니까?”

하고 호소하면서 엎어져서 기절하고 말았다. 시어머니 정씨가 그 며느리의 참상을 보고 울면서 영감에게 애타게 부르짖으며,

“옛말에 이르기를 잊지른 물은 그릇에 다시 담지 못한다 하오니, **영감은 자세히 모르시고 백옥같이 티 없는 정절한 며느리를 억울하게 음행(淫行)의 죄로 포박(捕迫)하시니, 며느리의 무죄가 밝혀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없겠습니까?(숙영의 정절을 믿고 있는 시어머니 정 씨)**”

하고 뜰 아래로 뛰어 내려가서 남자를 안고 대성통곡(大聲痛哭)하였다.

“너의 **송백(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절개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오늘 이런 변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니 어찌 지극히 통탄치 않으랴.”

하니 남자가 말하기를,  
 “옛말에도 음행의 소문은 씻기 어렵다 하오니, 동해의 물로도 씻지 못할 이런 누명을 쓰고 제가 어찌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하고 통곡하였다. 시어머니 정씨가 남자를 가엾게 여기고 만단으로 위로하고 타일렀으나, 남자는 끝내 듣지 않고 문득 옥잠(玉簪)\*을 빼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절하고 빌었다.

“지공무사(至公無私)한 황천(皇天)은 굶어 살피소서. 제가 만일 외간 남자와 간통한 일이 있거든, 이 옥잠이 제 가슴에 박히게 하시고, 만일 애매한 누명이거든 이 옥잠이 저 섬돌에 박히도록 하십시오.”

하고 옥비녀를 공중으로 높이 던지고 땅에 엎드렸다. **이윽고 그 옥잠이 떨어지면서 섬돌에 깊이 박혔다.**(전기적 요소, 숙영의 결백을 밝히는 증거) 그래서야 하늘이 심판한 기적을 보고 대변에 상하 모든 이가 대경실색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남자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알게 되었다. 백공이 뜰로 내려가서 남자의 손을 잡고 빌어 말했다.

“**높으니 주착이어서 착한 며느리의 정절을 모르고 망령된 일을 저질렀으니, 내 허물은 만 번 죽어도 죄를 씻지 못하리라.**(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며느리 숙영에게 용서를 비는 백공) 바라건대 너는 나의 **용렬함(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함)**을 용서하고 안심하라.”

남자는 슬피 통곡하면서,  
 “제가 이런 누명을 씻고 세상에 머물러 쓸데없사오니 **다만 빨리 죽어서 아황여영(娥皇女英)의 자취를 좇으려 합니다.**(시아버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고사를 인용하여 자결할 뜻을 밝히는 숙영)” 하였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옥잠: 옥비녀.

[지문 정리]

- 주제: 현실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 해제: 이 글은 도선(道仙) 사상을 바탕으로 한 애정 소설로, 숙영과 선군의 사랑을 통해 애정 지상주의적 가치관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잡시도 떠나고 싶지 않아 과거에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는 선군의 모습은, 입신양명으로 가문을 빛내고 효행을 중시하던 중세적·유교적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본능적 욕구를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며, 가부장적 권위가 약화되던 사회 변동상을 암시한다. 전체적으로 ‘만남-시련(누명과 죽음)-재생과 재회의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순조 때 전해준이라는 사람이 판소리 열두 마당의 하나로 「숙영낭자타령」을 잘 불렀다는 문헌의 기록에 근거하여 판소리계 소설로 추정하고 있다.

18. <답> ②

<정답 풀이>

이 글은 남자가 시아버지인 백공의 명령에 따라 잡혀오는 사건에서부터 현재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제시된 본문은 백공에게 잡혀온 ‘남자’가 추궁을 당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건디다가 마침내 오해에서 벗어났지만 치욕스러운 마음에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그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이 글에는 ‘대화’로 사건을 전개하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띈다. 또한 ‘대화’는 사건 전개가 느리고 ‘서술’이 빠르다.
- ④ 관용어를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은 없다.
- ⑤ 공간마다 서술자가 다르게 설정되지 않았다.

19. <답> ②

<정답 풀이>

[A]에서 '제 어린 소견으로는~해명할 길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남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심리가 드러나지만 [B]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기원의 정서가 두드러진다.

<오답 풀이>

- ① [A]는 시아버지인 '백공'에게 하는 말이고 [B]는 '하늘'을 향해 하는 말이다.
- ③ [A]에는 과거에 남편이 자신을 찾아왔던 일을 해명하고 있다.
- ④ [A]는 백공에게, [B]는 황천에게 특정한 일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⑤ [A]는 밝은 명천, [B]는 황천 등 모두 초월적인 존재에 기대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20. <답> ③

<정답 풀이>

'시어머니 정씨'가 '남자'를 모함했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시어머니 정씨'가 '형감'에게 며느리의 무죄가 밝혀졌을 때 후회감을 없앴느냐고 따지고, '남자'에게 송백 같은 절개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정씨'는 '남자'의 상황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남자'의 절개를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 '남자'는 시아버지인 '백공'에게 다른 남자와 사통했다는 오해를 받으며 갖은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는데, 이는 낭군인 '선군'이 집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이 글에서 '남자'는 '황천'에게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는 것이 누명이라면 옥잠이 섬돌에 박히도록 해달라고 한 후 옥잠을 던졌는데, 이것이 섬돌에 박혔다. 이런 신이한 일을 겪은 후 집안의 상하 모든 이가 '남자'의 억울함을 알게 되었고, 시아버지인 '백공'도 '남자'에게 사과하였다. '옥잠'이 섬돌에 박히는 신이한 일은 낭군이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이 글에서 '시아버지'는 '선군'의 아버지인 '백공'을, '시어머니'는 '선군'의 어머니인 '정씨'를, '며느리'는 '선군'의 부인인 '남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으로 보아 '남자'가 겪는 시련과 고난은 '선군'과 '남자'의 혼사 이후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 ⑤ 이 글에서 시아버지 '백공'은 며느리인 '남자'가 '선군'이 집에 없는 틈을 타 다른 남자와 사통하였다고 오해하여 '남자'를 결박하고 매질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주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1. <답> ②

<정답 풀이>

'동병상련(同病相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남자'에 대해 '매월'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매월'이 '남자'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다고 한 진실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청천벽력(靑天霹靂)'은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이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남자'는 뜻하지 않게 '백공'으로부터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므로, 이는 청천벽력과도 같

은 일이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후안무치(厚顔無恥)'는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의 의미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백공'이 '남자'에게 '네 무슨 얼굴을 들고 변명하려 드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백공'은 스스로를 변명하는 '남자'를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④ '후회막급(後悔莫及)'은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시어머니 '정씨'는 '백공'에게 나중에 '남자'의 결백을 알게 된다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울면서 말하고 있다.
- ⑤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의 의미이다. '남자'가 '저번에 낭군이 길 떠난 밤과 이튿날 밤 두 번, 겨우 삼십 리쯤 가다가 숙소를 정하였으나, 저를 잊지 못해 밤중에 집으로 몰래 돌아왔기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선군'이 '남자'를 오매불망(寤寐不忘) 그리워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2~26] 문학-갈래복합(고전문학+고전수필)

[지문 분석]

(가)

**산수간(山水間)**(자연, 속세와 떨어진 곳) 바위 아래 **피집**(초가집. 소박한 생활을 의미)을 짓노라 하니  
**그 모든 남들**(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얗\***(화자 자신을 낮춘 겸손함의 표현)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쫄나물**(소박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가지**(실컷)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세속적 가치)이야 부릴 줄이 **있으랴**(설의적 표현)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뉘**(친화의 대상)를 바라보니 **그리던 뉘**('뉘'와의 비교의 대상)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자연 친화적 태도)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

누고서 **삼공**(三公)(가장 높은 세 가지 벼슬)**도곤**(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설의적 표현)  
이제로 **헤어든**(생각해 보니)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뚫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을 비길 곳이 없으랴

내 **성**(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다만) 다투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자연 친화적 태도)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자신이 잘해서 자연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충(忠)의 가치)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을 일이 없으랴**(벼슬을 포기하고 자연에서의 삶을 택했기 때문)

- 윤선도, 「만흥(漫興)」

- \*하얌: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만승: 천자(天子).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나)

내가 의주로 귀양 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세든 집이 낮고 좁아서 답고 답답하기에('규정'을 짓게 된 이유) 해바라기 수십 포기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누끼고 있을 뿐인 채소밭에 서까래 몇 개로 정자를 얹고 따로 지붕을 덮어(정자의 모습) 이를 규정\*이라고 이름지었다.

손님(보편적 가치관을 지닌 이) 가운데 나(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이)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해바라기에 대한 통념)입니다. 옛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 나무, 꽃 가운데서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하였습니다.(식물을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로 자기 사는 집의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리석게도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것입니까?”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여 이보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손님의 평가를 인정하는 글쓴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는 식물 가운데 굳고도 세어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우뚝 홀로 서서 명성과 덕망이 우뚝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먼 바닷가로 쫓겨나서,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유배지에서의 글쓴이의 삶)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해도, 또한 그 식물들의 수치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정자의 이름을 소나무·대나무 같은 것으로 짓지 않은 이유) 버림받은 사람(글쓴이 자신의 처지)으로서 천한 식물을 짝하고,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나 배추 같은 하찮은 것들도 옛 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대개 충성과 지혜(해바라기의 두 가지 훌륭한 점)는 남의 신하 된 자가 갖추어야 할 절도이니, 충성으로써 사물을 분별하여 시비를 가리는 데 잘못함이 없는 것, 이것은 군자도 어렵게 여기는 바이지만, 내가 옛날부터 흠모해 오던 덕목입니다.

이런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연약한 못 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고 먹고 하는 것이 임금님의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한 술 뜨고 나서 시를 읊을 때마다 해(임금을 비유)를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가 없었으니, 항상 임금을 생각하는 태도(해바라기로 나의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것이 어찌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겠습니까?) 손님이 말했다.

“나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했는데, 그대 정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손님은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하고 '규정'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음을 밝힘.)

- 조위, 「규정기(葵庭記)」

\*규정: 해바라기 정자.

[지문 정리]

(가)

-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
- 해제: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흥겨운 삶을 노래하고 있는 이 작품은 전체 6수로 된 연시조로, 병자호란 때(1642년, 56세) 왕을 호종(扈從,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여 따르던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해남 금쇄동에 은거하면서 지은 것이다. 자연에 묻혀 지내는 한가롭고 흥겨운 심정을 읊으면서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사대부 시조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

(나)

- 주제: 정자의 이름을 '규정'이라고 한 이유
- 해제: 이 글은 글쓴이가 의주로 유배를 가서 정자를 짓고 이름을 '규정'이라고 붙인 이유를 밝힌 한문 수필이다. 글쓴이는 '손님'이 정자 이름에 해바라기를 뜻하는 '규(葵)'를 붙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해바라기와 닮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자신이 해바라기처럼 보잘것없다고 멸시당하지만, 충성과 지혜가 있는 존재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유배지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정이 변치 않음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22. <답> ④  
<정답 풀이>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보리밥을 먹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동시에 임금에 대한 연군의 정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서술자는 유배지에서 살아가면서도 해바라기를 벗하며 그것을 통해 임금을 향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화자와 (나)의 서술자의 공통적인 태도는 현재의 생활을 비판하지 않고 군왕에 대한 충성심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화자와 (나)의 서술자는 연군의 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군왕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상상하고 있지는 않으며, (가)의 화자는 고초를 겪고 있지도 않다.
- ② (가)의 화자와 (나)의 서술자는 자연과 자신들의 과거사를 비교하고 있지도 않고, 둘 모두에게서 지난 일을 반성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가)의 화자와 (나)의 서술자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와 (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23. <답> ①  
<정답 풀이>

(나)의 해바라기는 서술자가 손님의 비웃음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

고 3

자 동시에 서술자의 삶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 (가)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 시어로는 ‘뗏집’을 들 수 있다. 즉, ‘뗏집’은 다른 이들에게 비웃음의 원인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시어인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자신이 누리는 일 이외의 일을 의미한다.
- ③ 화자가 그리워하는 존재로, 자연과 비교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④ 벼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간 소부허유는 화자가 유사한 존재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자연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 존재로, 6연의 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24. <답> ③

<정답 풀이>

<보기>에 따르면 (가)는 화자가 유배지에서 풀려나 은거할 때 지은 작품이다. 따라서 2연의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관직에 있을 때의 일, 즉 세속적인 일이고, 5연의 ‘인간 만사’도 번거로운 속세의 일들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1연의 ‘그 모른 남들’은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화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로, 화자와 같이 산중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존재라고는 볼 수 없다.
- ② ‘산수 간 바위 아래’나 ‘바위 끝 물가’는 화자의 유배지인 영덕이 아니라 은거지인 해남 금쇄동이다.
- ④ ‘그리던 입’과 ‘임금’은 인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화자가 이들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다물 이 없는 강산을 지키’는 것은 자연 속에서 산중 생활을 흐뭇하게 즐기는 삶을 뜻한다.

25. <답> ⑤

<정답 풀이>

(나)가 손님의 허물이나 자신의 허물을 탓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나의 허물을 타인이 알려 주기 전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은 추리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 풀이>

- ① ‘해바라기’를 대하는 손님의 태도와 서술자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이끌어 낼 수 있다.
- ② 유배를 온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못 받는 해바라기를 가꾸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에서 추리할 수 있다.
- ③ 해바라기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더라도 해를 향해 충성하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지혜를 가졌다는 점을 서술자가 인정한다는 것에서 추리할 수 있다.
- ④ 서술자 자신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고 먹는 것이 모두 임금의 은혜라고 하는 데서 추리할 수 있다.

26. <답> ③

<정답 풀이>

서술자는 [A]와 [B]에서 해바라기를 비유적으로 제시할 뿐, 해바라기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 ① [A]와 [B]는 모두 글쓴이의 발화로 해바라기의 이름을 정자의

이름으로 사용한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다.

- ② [A]와 [B]에서는 해바라기의 이름을 정자의 이름으로 사용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서술자는 해바라기를 의인화하면서 해바라기의 속성에서 인간의 속성을 유추하고 있다.

- ④, ⑤ [A]에서는 해바라기를 보잘것없는 천한 존재로, [B]에서는 지혜롭고 지조를 지닌 선비와 같은 긍정적인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27~30] 문학-현대소설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전쟁이 나던 1950년 겨울부터 가족과 떨어져 고향 진영에서 남의 집에 얹혀 살던 소년 길남은, 휴전 이듬해가 되어서야 대구 장관동에 세 들어 살고 있던 어머니, 누이, 두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된다.

나 역시 그해는 참으로 지긋지긋한 여름을 보내었다. 허기, 우울, 권태,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한 삶(가난하고 힘든 삶)을 증오했고, 나는 고향에서의 주막 더부살이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넘겼다. 나는 늘 가출할 생각만 했다. 허겁지겁 먹는 꿈이 아니면 길수(‘나’의 동생)의 유아기처럼 배들배들 말라 굶어 죽는 꿈만 꾸었다. 거리를 걸을 때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였다. 나는 뼈 없는 낙지 꼴로 신문을 끼고 노란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신문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길남)’) 그러나 낮이 유난히 긴 그해 여름 동안 나는 집을 떠나지 못했고, 허기로 길거리에 쓰러지는 불상사 없이 겨우 살아남았다. 차라리 길거리에 쓰러져, 어느 자식 없는 부장집 마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데려가 머슴으로라도 부려 먹게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하루 세 끼니 밥을 배부르게 먹는다면 원이 없을 것 같았다.(머슴살이를 살더라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인 ‘나’) 쓰러진다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왜무 같은 경충다리의 길중이(‘나’의 동생)는 그해 여름 잘 넘어졌다. 그는 동무가 없어 놀러 다닐 줄을 몰랐고 애늬은이같이 늘 표정도 말도 없었다. 방에 있을 때는 바느질 일을 하는 어머니의 잔심부름을 하고, 쪽마루에 나왔어 무슨 생각이 그리도 깊은지 멍하니 하늘바라기로 시간을 때웠다. 시험지는 늘 백 점만 받아 왔으 나(학교 성적이 뛰어났던 길중) 결코 뛰어다니는 법이 없는 그가 걸핏하면 다리를 휘청하여 넘어져 무릎을 깨곤 했다. “아무리 점심 밥을 굶는대지만 니놈 다리는 고무다런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게.”(자식들에게 엄하게 대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퇴박을 해도 길중이는 겁먹은 덩그란 눈만 껌벅일 뿐 대답말이 없었다. 길중이가 그렇듯 선례 누나(‘나’의 누이) 역시 야무졌다. 굶는 봉창이라도 하듯 누나는 공부에만 매달렸다. 누나의 희망은 사범 학교에 진학하여 졸업과 더불어 복사꽃 피는 시골 마을 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길(선례 누나가 바라는 삶)이었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풍금 치며 그렇게 살고 싶어.” 누나가 곧잘 하는 말이었다. 전쟁이 나던 해 누나는 초등학교 오학년이었고, 꿈 많은 소녀 시절에 전쟁(6·25 전쟁)의 참상을 혹독히 겪은 탓인지 ‘평화로운 가정’이니 ‘평화로운 시간’이니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란다’는 따위의, 평화란 말을 유독 즐겨 썼다.

그해 여름을 넘길 동안 내가 했던 비행 한 가지(주인집 부역의 밥을 훔쳐 먹은 일)는 그 뒤 오랜 동안 내 마음에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그 추억만 떠올리면 괴로움과 연민으로 지금도 얼굴이 달아오른다.(이 작품이 과거 회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알 수 있음.)

어느 날, 저녁 끼니로 보리죽 한 그릇을 먹고도 나는 얼마나 배가 고했던지 밤중에 위채 부엌으로 몰래 찾아든 적이 있었다.

속이 쓰러 한밤중에 눈을 뜬 나는 **주인집 부엌의 남은 밥을 뒤져 먹기로 작정했던 것**(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밥을 훔쳐 먹으려 함.)이다. 그런 작정을 하기까지 식모 안 씨가 남은 밥을 부엌 어디에 두는지를 엿보아 두었다. 나는 살그머니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반바지를 꺼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몇 시인지 몰랐으나 사위는 고요했다. 나는 **우선 변소로 갔다**.(주인집의 상황을 살피기 위함.) 먹는 양이 적다 보니 나올 건더기 없는 똥을 누는 채 변소간에 앉아 위채 동정을 살폈다. 방마다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위채 부엌으로 살쾅이처럼 다가가 닫힌 부엌문을 살짝 열었다. 안 씨가 쓰는 부엌 골방은 깜깜했다. 나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서 시렁\* 위를 더듬었다. 소쿠리가 만져졌다. 안 씨는 밤새 남긴 밤이 설까 보아 밥뚜껑을 덮지 않고 소쿠리로 덮어 두곤 했다. 낫쇠 밥그릇은 밥이 반 그릇쯤 남아 있었다. 나는 손으로 밥을 한 움큼 집어내어 찬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날은 그렇게 반 그릇 밥을 비워 내고 다시 우리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숯불을 피우자 위채 부엌에서, 쥐가 소쿠리를 벗기고 밥그릇을 뒤졌다고 안 씨가 쫓알거렸다. 내가 부리나케 위채 부엌에서 나오느라 소쿠리를 제대로 덮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나는 시침을 때었다.

하루 걸러 이틀 뒤, 밤중에 나는 또 **그 짓(밥을 훔쳐 먹는 짓)**을 했다. 이제는 좀 더 대담해져 찬장의 김치 사발까지 부뚜막에 내려 반찬과 함께 남은 밥 한 그릇을 몽땅 비웠다. 종지가 있어 손가락으로 건덕지를 집어내어 먹다 보니 푹고추 넣은 쇠고기 장조림이었다. **나로서는 난생처음 먹어 보는 찬(‘나’의 가족이 겪고 있는 가난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부자는 쇠고기를 이런 반찬으로도 만들어 먹는구나 싶었다. 다음은 이틀을 건너뛰어 사흘 만에 위채 부엌을 뒤졌다.

세 차례째 그렇게 훔쳐 먹고 난 이튿날이었다. 나는 신문을 받아 팔려고 집을 나섰다. 내가 바깥마당으로 나서자 뒤쪽에서, “길남아, 나 좀 보제이.” 하고 누군가가 불렀다. 돌아보니 안 씨였다.

**“부, 불렀습니까?”(밥을 훔쳐 먹은 일 때문에 당황하는 ‘나’)**  
나는 말부터 더듬거렸고 얼굴이 불을 쬐 듯 달아올랐다. 가슴이 뛰었다.  
“길남아, **니가 밤중에 우리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 안테이.**”(‘나’의 행위를 알고 있던 안 씨)

“아, 아지메가 봤다 말이지에”  
“내 누구한테도 그 말 안 할 테이 다시는 그런 짓 말거래이. 설령 점심밥을 굶어 배가 꼬매 고프더라도 사나이 대장부가 될라카모 그 좁은 곳곳이 참을 줄 알아야제. 너거 어무이는 물론이고 **성제(형제)**간도 그렇게 참으니 이 여름철을 힘겹게 넘기고 안 있나. 내 아무한테도 이 말 안 하꾸마.”

안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나’의 행위를 다그치지 않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안 씨)** 고개 빠뜨린 내 어깨를 다독거렸다.  
“알았심더.”

내가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씨 충고에는 **도독이란 말이 한마디도 들어 있지 않았음을**,(‘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부드러운 말로 ‘나’의 행동을 바로잡아 준 안 씨)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고개 빠뜨린 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어느 사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

안 씨가 내 밥 도독질을 어머니한테 귀땀했다면 나는 솟포대 회초리로 종아리며 등줄기에 지렁이 자국이 나도록 매를 맞았을 테고, 몇 끼니 밥은 굶게 되었을 터였다. 또한 두고두고 어머니로부터, “집안의 장자가 남의 밥 도독질까지 하다니.” 하는 지청구\*를 들었을 것이다. ]([ ]: 자신의 자식들에게 냉정하고 엄한 어머니의 모습)그러나 안 씨는 내 행실을 왜자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 뒤부터 나는 **남의 물건이라면 운동장이나 교실 바닥에 떨어진 동전, 도막 연필이라도 내 것으로 하지 않았으니**,(안 씨의 충고로 인한 ‘나’의 행동 변화) 그때 안 씨의 그 따뜻한 충고 덕분이었다.

- 「마당 깊은 집」

- \*시렁: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
- \*지청구: 꾸지람,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 \*왜자가지: 왈자지껄하게 떠들지.

[지문 정리]

- 주제: 6·25 전쟁 이후, 서민들의 힘겨웠던 삶의 모습
- 해제: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6·25 전쟁 직후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마당 깊은 집’은 주인집을 포함해서 6·25 전쟁으로 피란해 온 가족들이 세 들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으로 당시 우리 사회를 축소해 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으로 그림으로써 6·25 전쟁 직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섬세하게 보여 준다. 또한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함께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을 교차하여 성장 소설적 성격도 드러내고 있다.

27. <답> ②  
<정답 풀이>

‘그해 여름을 넘길 동안 ~ 지금도 얼굴이 달아오른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성인이 된 ‘나’가 궁핍함으로 인해 위채 부엌에서 음식을 훔쳐 먹다 들켰던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인물의 외양을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모든 장면에서 작품 속 인물인 ‘나(길남)’의 시선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⑤ ‘안 씨’가 ‘나’를 용서해 주고 있지만, 그것을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8. <답> ③

<정답 풀이> ‘안 씨’는 ‘나’의 밥 도독질을 알고 있었으므로 짐작을 기정사실화하여 ‘나’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안 씨’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도 ‘나’를 차분히 부르고 있다.
- ② ‘나’는 밥을 훔쳐 먹었기에 ‘안 씨’의 부름에 당황하고 있다.
- ④ ‘안 씨’는 ‘나’의 행위를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나’를 안심시키고 있다.
- ⑤ ‘안 씨’는 ‘나’의 행위에 대해 부드럽게 말하였으며, ‘나’는 그러한 안 씨의 말에 수긍하고 있다.

29. <답> ⑤

<정답 풀이>

‘안 씨’가 ‘나’의 도둑질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안 씨’는 ‘나’의 잘못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나’가 상처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안 씨’의 충고 이후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훔치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
- ② ‘안 씨’의 충고 이후 ‘나’는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남의 물건이라면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 ③ ‘안 씨’의 충고 때문에 ‘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다.
- ④ ‘안 씨’가 ‘나’에게 충고하며 ‘도둑’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나’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30. <답> ①

<정답 풀이>

‘나’가 신문팔이를 위해 거리를 걸을 때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였던 것은 허기를 채우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므로 물질적인 궁핍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삶에 대한 희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하루 세 끼 밥을 먹기도 힘들었던 ‘나’는 어느 부잣집의 머슴으로라도 부려 먹게 되기를 바란다. 그만큼 ‘나’는 가족들과 마당 깊은 집이라는 결핍의 공간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 ③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바느질 일을 하는 ‘어머니’와 신문팔이를 하는 ‘나’ 또한 전쟁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마당 깊은 집에서 피란살이를 하는 사람들 모두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 ④ ‘선례 누나’는 고된 피란살이를 하면서도 시골 마을 초등학교 선생이 되고 싶은 인물이다. 따라서 소박한 꿈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로 볼 수 있다.
- ⑤ 지독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주인집의 밥 도둑질을 했던 ‘나’를 도둑으로 몰지 않고 다독여 주는 ‘안 씨’는 주인집의 식모이지만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인물이다.

[31~34] 문학-현대시

[지문 분석]

(가)  
 자일을 타고 오른다.(무명(無明)에서 벗어나 진리를 탐구하려는 행위)  
 흔들리는(번뇌로 인해 흔들리는 삶) 생애(生涯)의 중량(重量),  
 확고(確固)한  
 가장 철저한 믿음(삶의 가치)도  
 한때는 흔들린다.  
 암벽(岩壁)(어둠, 무명(無明)의 상태)을 더듬는다.

빛(진리, 본질, 깨달음의 세계)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無明)의 별레(화자 자신을 비유)처럼 무명(無明)을 더듬는다.

[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 ]: 탐욕을 부리지 않고 차별하지도 않음.)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무소유의 삶의 태도)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암벽(岩壁)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接近)한다.

[ 행복(幸福)이라든가 불행(不幸) 같은 것은 생각지 않는다. ]([ ]: 행복·불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함.)

발 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진리와 깨달음을 향한 험거운 과정)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

- 「등산(登山)」

(나)  
 누룩 한 덩이(역사 속 민중을 상징함)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누룩만으로는 술이 될 수 없음. 홀로는 연약한 민중)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소시민적 삶) 알맞은 바람(누룩을 일깨우는 존재)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누룩의 열정)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민중)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고난을 겪는 민중)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소망)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벌(부정적 현실 속에서의 희망)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스스로 희생하여 술을 만드는 누룩, 희생 정신 ①)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스스로 희생하여 술을 만드는 누룩, 희생 정신 ②) 보았느냐

진(누룩)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누룩과 여러 가지가 섞여 술이 됨. 공



- ③ ㉠과 ㉡ 모두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상실한 가치라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 ④ ㉠과 ㉡ 모두 희망적 상황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 ⑤ ㉠과 ㉡은 '누룩'의 변화를 이끌고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화법과 작문

35	⑤	36	③	37	③	38	⑤	39	③
40	④	41	⑤	42	③	43	⑤	44	③
45	⑤	수고하셨습니다.							

[35~37] 화법  
[지문 분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건강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발표 주제를 제시) 먼저 이 사진(시각 매체의 활용)들을 봐 주시겠습니까?



왼쪽 사진은 약 100여 년 전 담배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네요. 한쪽은 고통스러운 노동에, 다른 한쪽은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너무 달라 보이는 이 두 사진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은 얼마 전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중독에 걸린 아이들의 척추가, 움크리고 앉은 채 중노동에 혹사당하던 아이들의 척추와 매우 닮았다는 것(두 사진의 공통점)입니다. IT의 발달이 오히려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꼴(사진을 제시한 이유)이 된 것이죠.

그럼 세계적인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질문을 통해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을 제시) 어린이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보유와 사용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비율)지요. 과연 우리 청소년들, 건강할까요?

디지털 기기로 인한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목 디스크(디지털 기기로 인한 질환의 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자료의 출처를 제시) 20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목 디스크 환자 수가 2008년 4,545명에서 2011년에는 5,587명으로 20% 이상 증가(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급속도로 디지털 기기가 보급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목뼈는 원래 자연스러운 C자 형태이지만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지속되면 이른바 거북목 혹은 일자목(디지털 기기 사용의 부작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디스크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깨와 손의 통증, 두통, 전신 피로로까지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전문가의 의견 제시) 특히 이러한 질환은 청소년들의 체형 형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질환을 예방하고 디지털 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딱딱한 의자나 바닥에 앉아 등을 기댄 채 꼳꼳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문제 해결 방안 ①)이 좋습니다. 목은 자연스럽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겨 주고 시선은 15도 정도 아래로 유지합니다. 또한 자주 스트레칭을 하고, 자세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문제 해결 방안 ②) 물론 디지털 기기의 적당한 사용(문제 해결 방안 ③)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 핵심 정리

- 갈래: 발표문
- 성격: 정보 전달적
- 주제: 디지털 기기로 인한 질환과 예방법
- 특징
  - 시각 자료와 통계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고 신뢰도를 높임.
  -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임

35. <정답> ⑤

<정답 풀이>

발표자는 네덜란드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청중에게 새로운 정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청중에게 익숙한 연구 결과를 새롭게 해석해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발표자는 청중에게 두 개의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는 담배 농장의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의 척추가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를 흥미롭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자가 두 사진을 제시한 것은 화제와 관련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② 20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목 디스크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드러내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디지털 기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의는 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의 견해는 발표 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해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④ 발표자는 '너무 달라 보이는 이 두 사진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라고 묻은 후 척추가 닮았다는 답변을 제시하고, '과연 우리 청소년들, 건강할까요?'라고 묻은 후 건강상의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디지털 기기로 인한 청소년 건강상의 문제점'에서 '디지털 질환의 예방법'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발표를 이끌어 가고 있다.

36. <답> ③

<정답 풀이>

<보기>는 '기억력, 학습능력, 집중력 등 인지 능력의 감퇴 현상'과 '불안감, 우울함' 등 심리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발표는 신체적 건강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정신적 측면에 대한 부분을 추가할 것을 조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발표 내용은 문제점을 다루고 있지만 <보기>는 유익한 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

43. <답> ⑤

<정답 풀이>

(가)와 (나)를 통해 글쓴이는 물 부족의 실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글쓰기는 사회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를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도를 담고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친교적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친교적 관계 형성을 위한 작문에는 편지 등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물 부족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물의 날’을 지정했지만 물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글쓰기이다.
- ②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포착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 ③ ‘물의 날’을 잘 모를 뿐 아니라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한 바를 글에 담아내고 있다.
- ④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글쓰기이다.

44. <답> ③

<정답 풀이>

글쓰기를 계획할 때에는 여름에 집중 강우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중요 요인임을 언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여 강우량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물 사용 강도가 높다는 점까지 추가로 언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는데, 본문에는 이런 수정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우리나라가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임을 밝히고 있다.
- ② 시각 자료 없이 설명의 방식을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있다.
- ④ 물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 ⑤ 물을 절약할 것을 촉구하며 글을 맺고 있다.

45. <답> ⑤

<정답 풀이>

‘통’은 뒤따라오는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는 서술어와 호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르러 있습니다.’와는 호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혀’ 역시 부정의 의미를 지닌 서술어와 호응하는 부사이므로 ‘통’을 ‘전혀’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문장은 어색하다. ‘전혀’ 대신에 ‘대단히’, ‘매우’ 등의 부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④는 모두 적절한 설명이다.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②	37	④	38	①	39	①
40	④	41	④	42	②	43	④	44	④
45	⑤	수고하셨습니다.							

[35-36번 언어 이론]

▶ 시제(時制): 말하는 이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시의 앞뒤를 제한하는 것

① 현재 시제 :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할 때

표현방법	종결형 : 동사 + ‘-는/-ㄴ-’, 형용사, 서술격조사 단독	그는 지금 책을 읽는다. 하늘이 푸르다. 이것은 책상이다.
	관형사형 : 동사 어간 + ‘-는’, 형용사, 서술격 조사 + ‘-(으)ㄴ’	이처럼 예쁜(예쁘+ㄴ) 꽃은 처음이다.

특징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현재 시제 표시 형태가 따로 없다.	바쁘시다, 이시다
	발화시 관련 부사적 표현에 의해 뒷받침 된다.	지금, 현재, 요즘,...
	반복되는 동작이나 항구적 속성, 습관을 표시한다.	지구는 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형은 야구를 좋아한다.
	발화시 이후에 일어날 예정된 일도 표시함. 확실한 미래.	내일 떠난다.(사건시와 발화시의 불일치)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	도서관은 책을 읽는 학생들로 붐볐다.
	현재에 있어서의 현재.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처음 본다.

② 과거 시제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설 때의 시제